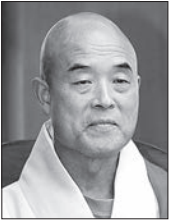


“교구 안정과 발전 이끌어 달라”

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 임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에 종우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국사 신임 주지 종우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종우스님은 지난 5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단독 임후보해 만장일치로 신임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총무원장 스님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불국사는 문종 화합을 통해 원만하게 신임 주지를 선출했다”면서 “신임 주지 스님은 오랫동안 선원을 접을 없이 이끌어 온 만큼 앞으로도 교구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인사를 건넸다. 불국사 주지 종우스님은 “선원에서 정진하다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회주 성타스님과 관장 종상스님이 그동안 불국사를 탄탄하게 잘 이끌어 온 만큼 저 또한 그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성타스님도 “종우스님은 그동안 선원장 소임을 맡아 불국사 안정에 있어 큰 축을 맡아왔다”면서 “행정에 다소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덕망이 높은 만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축하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선암사 법원·약사사 무언스님

직할경찰 주지 인사

최근 조계종 직영사찰에서 직할교구 경찰로 전환된 순천 선암사 주지에 현 주지 법원스님(사진 왼쪽), 서울 약사사 주지에 무언스님(오른쪽)이 각각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원스님과 무언스님에게 선암사, 약사사 주지 임명장을 각각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사찰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법원스님은 1996년 직지사에서 녹원스님

을 계사로 사미계,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총무원 조사국장, 선암사 직영사찰관리인 등을 역임했다. 영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무언스님은 1997년 직지사서에서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2년 직지사서에서 범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김포 금정사 군포교 기금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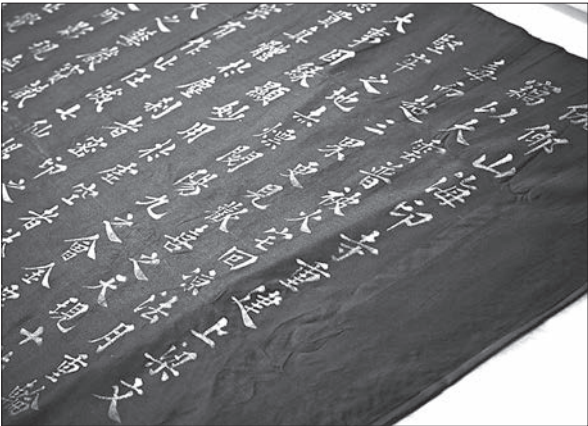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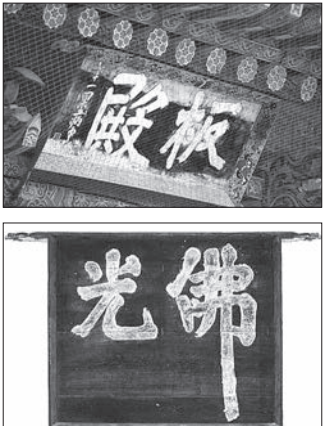
12사단 신병교육대
법당 지원 위해 '정성'

김포 금정사(주지 명훈스님)는 지난 17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사무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군포교 지원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원해왔다. 작은 금액이지만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열악한 전방 부대 법당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군법당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군불교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가 당대 최고 스님들과 깊이 교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유물. 사진 왼쪽부터 봉은사 옛 모습과 판전 현판, 은해사 불광(佛光) 현판,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

추사 김정희와 봉은사, 인연을 말한다

불교중앙박물관·봉은사
25일~12월12일 특별전

서울 봉은사 판전(板殿)은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죽기 사흘 전에 쓴 '판전'이란 편액이 걸린 곳으로 유명하다. 마지막 순간에 추사가 심혈을 기울여 쓴 판전 글씨는 추사체의 완성이라 할 만큼 중요한 유물이다. 송유역불 시대 조선 최고의 서예가이자 유학자로 칭송받은 김정희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글씨를 남기게 됐을까.

추사와 봉은사와의 숨은 인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병스님)과 봉은사(주지 원학스님)는 19세기 불교와 유교의 소통을 조명하고자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특별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오는 25일 오후3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12월12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봉은사와 추사의 만남을 통해 불교와 유교의 교류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그동안 정희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글씨를 남기게 됐을까. 그 대표적인 문화재가 봉은사 판

전 현판이다. 사실 김정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와 인연이 깊었다. 화암사를 원찰로 둘 정도로 불교와 관계가 돈독했다. 부친 김노경은 당대 최고 선지식이었던 대흥사 해봉스님과 교류했다. 집안 영향으로 추사는 어린 시기부터 스님들과 교류했으며, 만년에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를 다녀온 이후 경기도 과천에 은거하며 자연스럽게 인근의 봉은사 스님들과 교분을 쌓았다. 당시 봉은사는 주지 호봉응규 스님을 소개되지 않았던 사찰 소장 김정희 관련유물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그 대표적인 문화재가 봉은사 판

이번 전시는 또 추사와 관련된 불교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관심이 뜨겁다. 33세에 쓴 '해인사 대적광전 중건 상량문'을 비롯한 보물 3건, 지방문화재 5건을 포함한 77건 124점이 전시된다. 은해사의 편액 '불광'과 '대웅전'도 공개된다. 이들 유물을 통해 추사는 유학과 불교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추사는 초의스님과 40여년 동안 교류했을 뿐 아니라 은해사 흔허 지조스님 등과도 교류하며 사상적 폭을 넓혔다. 조선시대 불교사 중심에 있었던

봉은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물도 대거 공개된다. 청동 은입사 향완(보물 321호), 대웅전 홍무 25년명 동종(서울유형문화재 76호) 등이 대표 작품이다. 근현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도 마련된다. 이분회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은 “기존 추사 관련 전시는 연대별 구성이 대부분이었다”며 “조선 시대는 역불송유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편견을 뛰어넘는 조선 후기 유학자와 스님 간의 교류가 얼마나 빈번했는가를 집중 조명했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광명회 단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포교사단 임원진은 지난 18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세월호 참사 유족 위로 및 승려노후복지 기금을 전달했다.

세월호 참사 위로·승려노후복지 기금 기탁

포교사들 정성 모아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광명회)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금을 종단에 기탁했다. 광명회 단장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전국의 포교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종단의 이름으로 소중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포교사단 팔계계 수계법회 및 신규포교사 품수식에도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살행과 포교활동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화답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임원진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포교사단은 지난 2000년 출범한 포교사들의 연합체로 현재 4000여 명의 포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장영섭 기자 fusi@ibulgyo.com

“경찰 ‘윤 일병 사건’ 없어야 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구은수 서울청장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구은수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청장 취임을 축하드리다”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발생한 윤 일병 사고 등 군대와 경찰에서 의무 복무하는 청년들의 집단생활 적응이 어려워지는 만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은수 청장은 “경찰에서는 이미 몇 해 전 이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부대가 해체되는 등 병영문화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현재는 의경 입대 경쟁률이 10~20대 1이 될 정도로 청년

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의경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경승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지난 8월29일 임명된 구은수 청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간부후보 33기로 입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청 경교과장, 서울청 22경찰경호대장, 101경비단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문화부장 해일스님, 호법부장 세영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정용근 정보2과장, 실감실 종로서장 등이 배석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제1회 韓日佛敎學術 Forum

한일불교학술포럼

우리시대에 있어 불교란
현대인에게 법화경의 의미

일시 : 2014년 10월 4일 (토) 14~18시 장소 : 경희대학교(서울) 청운관

제1회 韓日佛敎學術 Forum

한일불교학술포럼

우리시대에 있어 불교의 의미를 한국과 일본의 불교지성을 모시고 들어보는 불교포럼을 개최하여 현대인에게 종교의 의미와 불교 그리고 법화경이 주는 가르침의 참뜻을 알리는 계기가 되 고자 합니다.

제1회 한일불교학술포럼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지성, 불교 관련 명사와 일본의 법화경 학과 교수, 한국의 법화경 연구 사상가를 초청하여 주제강연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4일 포럼 프로그램

1 기 조 강 연 : 경희대학교 철학과 <허우성> 교수 (불교철학)

1 법화경강연 : 일본 입정대학교 불교학과 <北川前肇> 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차차석> 교수

1 불 교 대 담 : 한일불교학자 간 대담 : 사회 - 보토사 주지 <법 현> 스님

10월 5일 “일련 대성인” 특별강연

1 특 별 강 연 : 일본 입정대학교 불교학과 <北川前肇> 교수

1 강 연 시 간 : 2014년 10월 5일 10시~16시

1 강 연 장 소 : 대한불교일련종 불교산보토사 (경기도 광주시 퇴촌)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참석하실 분은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1. 참석자 이름 2. 연락처 3.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셔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1 기획 · 주관 : 한일불교학술포럼 사무국 1 주최 : Nichiren Shu
대한불교 일련종 보토사

• 문의 : 한일불교학술포럼 사무국
H.P : 010-8800-8199, 010-7223-8399 / E-mail : botosa@naver.com
대한불교일련종보토사 http://blog.naver.com/botosa